

## 만성기도질환 교육수가 신설 필요성

건국의대 내과

유 광 하

2017년 7월 21일 대한결핵 및 호흡기학회, 대한 천식알레르기학회, 대한 소아알레르기 호흡기학회 등 3개 학회 주최로 국회의원 회관에서 만성기도질환 교육수가 신설의 필요성에 대한 국회 정책 토론회가 있었다. 이 자리에는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국회의원, 복지부 급여과, 보험심사평가원 수가개발부서가 함께 참여하여 심도 있는 토의를 하였고 여러 언론매체에서 관심을 보였다.

기관지 천식, 만성폐쇄성폐질환 (COPD)을 지칭하는 만성기도질환은 지속적인 치료가 필요한 만성 질환임에도 불구하고 질병에 대한 인식 부족, 이로 인한 조기 진단의 어려움, 진료 현장에서의 질환 교육, 자가 관리 교육, 흡입약물사용 등을 위한 교육상담 시간 부족 등으로 효과적인 관리에 애로점이 많다.

만성기도질환은 외래에서의 효과적인 진료가 환자의 응급실 방문, 입원율을 낮추는 중요한 대표적인 외래민감성 질환이지만 천식의 경우 입원율이 OECD 평균 2배 이상 높다. 다행히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천식 및 COPD가 적정 관리가 필요한 만성질환으로 인식하여 2013년부터 천식 적정성평가, 2014년부터 COPD 적정성평가를 진행하고 있으나 기대한 만큼의 효과를 보이지 않고 있다.<sup>1,2</sup>

천식 적정성평가의 경우 1차년도 결과에 비해 2016년 3차년도 결과에서 흡입용 스테로이드 사용율이 25.3%에서 30.6%로 증가하였고<sup>1</sup> COPD 적정성평가의 경우 1차년도에 비해 2차년도 기관지 확장제 처방 비율이 67.9%에서 71.2%로 미미하게 증가하였다.<sup>2</sup>

대한 천식알레르기 학회, 대한 결핵 및 호흡기학회에서는 꾸준히 천식과 COPD 진료지침을 개발하여 1차 의료기관에서 적절한 치료를 할 수 있는 교육 자료를 제공하고 있지만 지침서 발간 이전 3년과 지침서 발간 이후 3년을 비교하면 천식의 경우 일차병원에서 흡입용 스테로이드 사용이 오히려 줄어든 것을 알 수 있어 국가적 평가정책, 학회 지침서 배포 등은 크게 효과를 보이지 않는 듯하다.<sup>3</sup>

국내를 포함하여 8개 아시아 나라의 천식 상태를 조사한 REALISE 연구에 의하면 국내의 경우 질환에 대한 인식과 천식 조절도가 낮으며 특히 환자 일인당 진료 시간이 가장 짧은 것으로 조사 되었다.<sup>4</sup> 국내 환자의 경구용 약물 선호도, 진료 시간의 부족은 진료 현장에서의 교육의 어려움을 보여 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대부분의 일차의료인은 교육을 위한 자료개발, 인력, 교육 시간 소요 분에 대한 적절한 경제적인 보상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주고 있다.

천식 치료에는 흡입용 스테로이드로 대표되는 항 염증제를 사용하여 급성 악화를 약 50% 가량 줄일 수 있고 COPD의 경우 흡입용 기관지 확장제로 약 30% 정도 급성 악화를 줄일 수 있어 흡입제가 가장 중요한 치료제이나 그 성격상 제대로 사용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교육을 하는 것이 매우 필요하다.<sup>5</sup> 국내 개인병원을 대상으로 1년 이상 치료 중인 천식, COPD 환자 약 300명을 모집하여 2주 간격으로 3회에 걸쳐 10분 정도 질환, 흡입제 사용, 급성 악화 시의 행동요령을 교육한 경우 ‘증상에 상관 없이 지속적이 치료가 필요하다.’<sup>6</sup> 만성 기도 질환은 염증성 질환이다’ 등과 같은 질환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지고 흡입제 사용 방법이 모두 호전되어 국내에서도 교육의 중요성이 입증되었다. 특히 최근에는 3회가 아닌 1회의 교육도 환자의 만족도, 정확한 흡입제 사용 방법의 호전을 보여 최소한의 횟수로도 교육이 필요한 것을 보여 주었다 (inpress).

우리나라는 2017년 이미 65세 이상이 전체 인구의 14%를 넘어 고령 사회가 되었으며 천식과 COPD 모두 연령이 증가할수록 유병율이 높아지는 것을 고려할 때 노인 환자를 대상으로 한 교육은 반드시 필요하겠다.<sup>7</sup>

응급실을 방문한 천식 급성 악화 환자를 분석한 경우 환자의 천식을 오래 동안 치료한 것은 천식 조절 상태에 영향을 주지 못하고 천식에 대한 교육을 받은 경험은 천식 조절에 상태에 영향을 주는 것을 보여주어 만성기도 질환에 대한 교육은 반드시 필요하겠다.<sup>8</sup>

국내 천식 환자로 인한 경제적 부담은 2조를 넘었고 COPD의 경우에도 1조 4천억을 넘는 부담을 가지고 있으며 특히 직접 의료 비용의 대부분은 급성 악화 치료에 소요되고 있다.<sup>9,10</sup> 효과적인 흡입 약물 치료는 급성 악화를 30~50% 가량 줄일 수 있기 때문에 교육을 통한 정확한 치료와 자기 관리는 의료 비용 부담을 줄일 수 있겠다.

국제적인 천식 진료지침, COPD 진료 지침, 코크란의 체계적 분석 결과 모두에서 만성기도질환 환자에 대한 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외국의 경우 미국은 교육에 대한 처방 코드를 따로 가지고 있어 이 코드에 따라 보상을 해 주고 있으며 호주는 PIP (practice incentive program)을 통해 지원을 하고 있고 독일의 경우 MPD를 통해 교육에 대한 지원을 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현재 11개 질환에 대해 교육 상담료가 있으며 암 교육을 제외한 대부분은 비보험이다. 2012년 12월 건강보험정책심의조정위원회 (건강심)에서는 교육 상담료 확대를 요청하는 질환에 대한 검토 원칙을 아래와 같이 정하였다.

- 1) 질병 특성상 자가관리 수행이 합병증 예방 등 의료 결과에 미치는 영향이 크고
- 2) 입원치료보다는 외래 통원치료가 주로 이뤄져
- 3) 일상생활 속에서 질병에 대한 이해도를 높여 나가는 것이 중요한 질환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만성기도 질환은 위 3가지 조건을 모두 만족하고 있다.

금년 7월 시행한 국회 정책 토론회를 시발점으로 상기 3개 학회를 중심으로 만성기도질환 교육수가 책정을 위한 여러 노력이 필요하겠다. 교육 상담료 인정 필요성 및 효과성 대한 자료 확인, 교육자 기준 및

교육 내용 개발, 표준화된 교육 상담 프로그램 및 프로토콜 개발을 완료한 이후 복지부와 심평원과 긴밀한 협조를 이뤄 건정심을 통과해야 하는 절차가 필요하다.

우리나라 천식 환자의 80% 이상이 개원병원에서 치료받고 있으며 COPD의 경우 많은 환자 수에도 불구하고 일차의료 기관에서는 진료료 거의 담당하고 있지 않다. 만성기도 질환 치료에 대한 일차의료기관의 적극적인 참여,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 만성기도질환의 적절한 관리를 위해 만성기도질환 교육수가 반드시 필요하겠다.

## REFERENCES

1. 2015년 (3차) 천식 적정성 평가 결과. 보험심사평가원
2. 2015년 (2차) 만성폐쇄성폐질환 적정성 평가 결과. 보험심사평가원
3. Sang Hyuck Kim, Be Long Cho, Dong Wook Shin, et al. The effect of asthma clinical guideline for adults on inhaled corticosteroids prescription trend: A quasi-experimental study. J Korean Med Sci 2015;30:1048
4. David Price, Aileen David Wang, Sang Heon Cho, et al. Time for a new language for asthma control: results from REALISE Asia. Journal of asthma and allergy 2015;8:93
5. Shawn D. Aaron, Katherine L. Vandemheen, Dean Fergusson, et al. Tiotropium in Combination with Placebo, Salmeterol, or Fluticasone - Salmeterol for Treatment of Chronic Obstructive Pulmonary Disease: A Randomized Trial. Ann Intern Med 2007;146:545
6. Jung Yeon Lee, Kwang Ha Yoo, Deog Kyeom Kim, et al. Effects of Educational Interventions for Chronic Airway Diseases on Primary Care. J Korean med Sci 2016 Jul;31:1069
7. 2015 고령자통계. 통계청
8. Hamdan AL-Jahdali, Anwar Ahmed, Abdullah AL-Harbi, et al. Improper inhaler technique is associated with poor asthma control and frequent emergency department visits. Allergy, Asthma & Clinical Immunology 2013;9:8
9. Chang yup Kim, Heung Woo Park, Su Kyoung Ko, et al. The financial Burden of Asthma: A nationwide comprehensive Survey Conducted in the Republic of Korea. Allergy Asthma Immunol Res 2011;3:34
10. Kwang Ha Yoo, Chin Kook Rhee, Yun Hee Kim et al. Report of Burden of COPD in Korea. Graduate School of Public Health, Seoul National University.